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뉴스레터

Newsletter of the Korea Society for Moral & Ethics Education Association

2022년 8월호

- 홈페이지 : www.kmeea.com
- 메일주소 : kmeea@daum.net
- 학회주소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1-418
- 전화번호 : 02-880-7726



송 재 범
(서울 신서고등학교장,
본회 부회장)

나무토막으로 만든 꼭두각시 인형 피노키오. 피노키오를 만든 제페토 할아버지는 요정에게 피노키오를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요정은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피노키오가 사람이 되려면 선악을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해 학교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전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선악을 알아야만 진짜 사람이라는 것이고, 둘째로 학교는 선악을 배우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피노키오에게, 제페토 할아버지에게, 그리고 『피노키오의 모험』을 쓴 작가에게 학교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미래 교육 담론의 압박을 받고 있는 학교, 성장보다는 생존이 요구되는 학교, 3년간의 코로나로 지쳐 있는 학교 등이 그려집니다. 여기서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회원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피노키오에게 선악을 배우는 곳이었던 학교의 존재 의미가 과연 오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 의미를 계속 살려야 한다면 오늘의 도덕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그 방향성의 탐색에 있어서 다음의 두 가지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새로운 형태로서의 학교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로 인해 학교는 원격 수업이라는 대체의 교육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원격 수업은 대체가 아니라 대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커다란 건물과 운동장으로 이루어진 공간으로서의 학교라는 형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언스케일(UNSCALED)』(2019)의 저자는 온라인화된 미래 학교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상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 세계의 개별 교실들을 연결해 가상으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앱들이 생기리라 본다. 과학을 좋아하는 미국의 5학년 학생은 같은 건물에 있는 1학년 학생보다 관심사가 같은 폴란드, 인도, 칠레의 5학년 학생과 더 공통점이 많다. 모바일, 소셜, 클라우드, 가상현실, 3D 프린팅을 활용하면 아주 멀리 떨어진 교실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학교를 만들 수 있다면 학교 수만 채를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일 것이다.”

다음으로, 달라진 학습자[학생]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하는 초중고 학생들은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세상에서 성장한 첫 세대를 말합니다. 어른들은 디지털 기술을 ‘도구’로 여겨 ‘이용’하지

만,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그냥 자신이 살아가는 기본 환경으로 여깁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란 말을 소개한 미래학자 마크 프렌스키(Marc Prensky)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교육이 맞닥뜨린 가장 큰 문제는 교사가 시대에 뒤쳐진 디지털 이전의 언어를 갖고서 거의 완전한 디지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을 가르치려 한다는 점이다.”

디지털 네이티브는 휴대폰을 마치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지식은 도서관에서 찾거나 머리에 담아두는 그 무엇이 아니라, 자신의 손끝에서 검색하고 활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학교 교육은 지식의 저장고에서 학생들이 그것들을 끌어내어 자신의 머리에 얼마만큼 저장하는가의 저장(貯量) 개념에 기반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식의 전달이 저장이 아닌 스트리밍(streaming)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지식과 정보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스트리밍 자원이 되었습니다.

대면을 위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대면 없는 온라인으로 연결된 학교!

두뇌 저장이 아닌 실시간으로 지식을 찾고 활용하는 포노 사피엔스로서의 학생!

지속 가능한 도덕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꼭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학회가 이런 상황과 연계하여 얼마나 치열하게 논쟁하고 현장 친화적 도덕 교육을 고민했는지는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이론적 도덕 교육론이 아닌 학교 현장의 도덕 교육 또는 인성 교육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이런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피노키오에게 학교는 가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피노키오는 학교라는 말만 들어도 온몸이 아프다고 투덜댑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꾀에 빠져 학교가 없다고 하는 ‘장난감 나라’를 향하는 마차에 올라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피노키오는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선악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마도 피노키오가 다녔던 학교의 핵심 교육은 도덕 교육이었을 겁니다. 지속 가능을 넘어 학교 교육의 핵심으로 다시 부상하는 도덕 교육, 우리 학회가 그려야 하는 미래가 아닐까요?

II

학회 동정

1. 연차학술대회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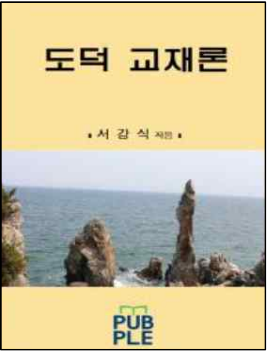
8월 5일(금) 오전 10시 40분부터 비대면(ZOOM)을 통해 제33회 연차학술대회가 개

최되었습니다. 이번 연차학술대회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초·중등 도덕교육의 과제’를 대주제로 하여, 분과별로는 ‘도덕발달 및 도덕교육’, ‘민주·글로벌시민교육’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연차학술대회에 많은 회원님들께서 참여해 주시어 종합토론 시간까지 풍부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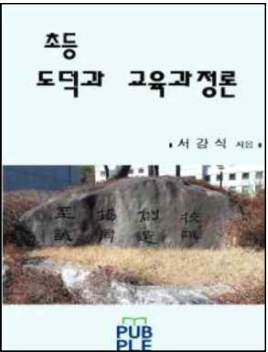


III 회원 동정

1. 출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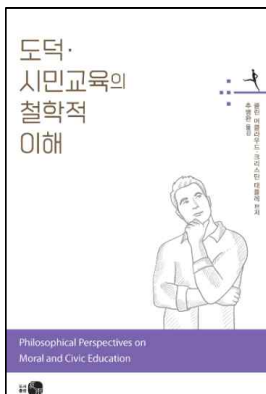
○ 본 학회의 고문이신 공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서강식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도덕교재론』이 4월 7일 퍼플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다문화, 통일교육, 정보통신윤리, 환경윤리, 인권에서의 배려, 효 등에 관한 도덕교육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도덕과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할 수 있으며, 도덕교재를 연구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교수·학습 지도 방법, 프로그램 활용 방안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본 학회의 고문이신 공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서강식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론』이 2022년 4월 13일 퍼플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해방 이후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는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도덕과 교육과정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으며, 특히 예비교사들이 초등학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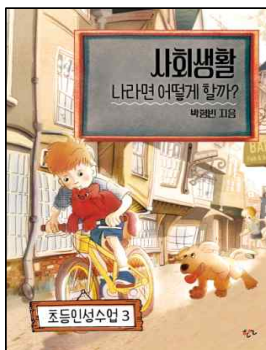
○ 본 학회의 고문이신 공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서강식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교육평가와 도덕과 평가』가 2022년 4월 7일 퍼플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교육평가에 관한 내용을 시작으로, 평가도구 및 교육측정, 도덕과의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요소 평가, 통합적 평가, 과정 중심 평가, 프로젝트 평가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 제시된 예시를 토대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평가도구를 개발해 볼 수 있습니다.



○ 본 학회의 고문이신 춘천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추병환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도덕·시민교육의 철학적 이해』가 2022년 7월 28일 하우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시민적 덕의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유덕한 성향을 어떻게 함양해야 하는가?’, ‘시민교육을 가능하게 하려면 학교를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도덕 심리학, 교육 철학, 정치 철학 등의 관점에서 답을 찾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와 함께 아동을 유덕한 시민을 기르고자 할 때 마주하게 되는 도전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본 학회의 회장이신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정창우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변혁적 도덕 역량 증진을 위한 도덕교육론』이 2022년 8월 30일 교육과학사에서 출간될 예정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기 자신과 세상을 ‘더 나은’ 상태로 ‘변혁(transformation)’시킬 수 있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를 육성하기 위해 도덕교육, 특히 초·중등 도덕과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과 과제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학문 분야(특히 도덕심리학과 윤리학)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고 시대적·사회적 요구를 고려하면서 초·중등 도덕과교육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본 학회의 초등교육연구위원회 위원이신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박형빈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사회생활 나라면 어떻게 할까?』가 2022년 7월 1일 한언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제시해 주어, 이를 통해 부모님, 교사, 학생들이 함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도덕적으로 상상하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힘을 키우고, 올바른 자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본 학회의 통일교육위원회 위원이신 경상국립대학교 윤리교육과 박균열 교수님께서 2019년 출원하신 특허 2건이 2년 동안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특허로 등록되었습니다. 특허 2건은 ‘가치의식 판단을 위한 전자장치 및 방법(등록번호: 10-2238586)’ 과 ‘인공지능의 자율적 도덕 판단 및 수행을 위한 시스템(등록번호: 10-2241311)’ 으로, 주관적인 가치관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측정·조사하는 획기적인 방법론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특허인 ‘가치의식 판단을 위한 전자장치 및 방법’은 크게 3단계에 걸쳐 한 사람의 가치의식을 판단하는 모델이며, 두 번째 특허인 ‘인공지능의 자율적 도덕 판단 및 수행을 위한 시스템’은 앞의 특허 기술의 연장 선상에서, 인공지능 자체가 자율적인 도덕적 판단 역량을 구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특허는 인공지능 자체가 어떠한 도덕판단 역량을 구비해야 하는지 방안을 제시해 주며, 군사용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우주 비행 등의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IV

공지 사항

1. 학회비 안내

본 학회의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학술지 『도덕윤리과교육』을 연 4회 구독하실 수 있으며 학술대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회비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정산되오니, 연초에 연회비를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회비 납부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연회비 : 일반 회원 3만원 / 이사 및 임원진 : 10만원
 - ※ 납부 계좌 : 국민 206001-04-182088, 예금주 :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 ※ 학회비를 입금하실 때 반드시 성함과 함께 소속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봉천중학교 홍길동 → 홍길동 봉천중
-

납부 명단

-
- 특별회비: 박균열(10만), 이영문(10만), 정창우(100만)
 - 연회비(이사 및 임원진): 강민겸(3만), 고정아(3만), 권재은(3만), 김남준(10만), 김도건(10만), 김병연(3만), 김봉제(10만), 김신아(10만), 김아영(3만), 김완수(3만), 김윤경(3만), 김은미(3만), 김은수(3만), 김진하(3만), 김철호(3만), 김태훈(10만), 김하민(3만), 김형렬(3만), 문일호(3만), 박형빈(10만), 서강식(3만), 송선영(10만), 신호재(3만), 심한식(5만), 우맹식(3만), 윤건선(3만),
-

이경원(3만), 이기연(3만), 이동현(3만), 이인재(3만), 이인태(3만), 이혜진(3만), 정대성(10만), 조일수(10만), 최윤정(3만), 추병완(3만), 추정완(10만)

○ 연회비(일반 회원): 강구섭(3만), 강미숙(3만), 고미숙(3만), 김승우(3만), 김연숙(3만), 김영은(3만), 김일수(3만), 김홍태(3만), 박대호(3만), 박상욱(3만), 박성근(3만), 박창식(3만), 서요련(3만), 신지선(3만), 오유석(3만), 이경근(3만), 이은주(3만), 이종우(3만), 이창용(3만), 이한진(3만), 전주교대도서관(10만), 정우석(3만), 최용성(3만)

○ 평생회원: 김상범, 김연숙, 김혜진, 박균열, 박동준, 박병기, 서은숙, 신중섭, 양방주, 이경희, 이영문, 이인정, 장유정, 정탁준, 최형찬, 허윤희, 황인표

※ 22. 8. 26. 기준

2. 투고 안내

○ 학술지 『도덕윤리과교육』의 77호 투고 논문을 모집합니다. 77호의 논문 투고 마감일은 2022년 10월 17일(월)까지입니다. 투고를 희망하시는 회원님께서는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의 잼스 시스템(kosmee.jams.kr)을 통해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에 통과한 논문의 게재료: 연구비를 수혜받은 논문은 1편당 30만원, 일반 논문은 1편당 20만원을 납부한다.

※ 논문의 기본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이내로 한다. 학회지 기준 20쪽을 초과할 경우, 1매당 10,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하되, 200자 원고지 200매 이상은 게재대상에서 제외한다.(2021.4.28. 개정)